김한길 당직인선 속도…계파갈등 앙금 씻을까

사무총장에 박기춘 전격 임명…'탕평인사' 시동

지명직 최고위원은 15일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9일 박기춘〈사진〉원내대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탕평'인사로 민주당의 해묵은 계파갈등의 앙금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친문재인계 배재정 의원을 대변인에 발탁한 데 이어 이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박 원내대표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당내 서열 2위로 불리는 원내대표를 맡았던 인사가 곧바로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개인으로는 위상 변화의 부담이 있음에도 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김 대표의 간곡한 부탁에 고사 끝에 수락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사무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사로 최고위가 당 사무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침을 가장 강단 있게 실천해낼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과 사무부총장 등 후속 당직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거리는 문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화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탕평 인사로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화합과 함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김 대표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번 사무총장 인선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고심했지만 화합보다는 혁신 쪽에 방점을 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대표는 계파를 생각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탕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또 다른 고민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취지를 살린 당헌·당규 개정으로 사실상 인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당 원로들은 물론 당 안팎의 인사를 수시로 만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파 안배를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결국은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따라서 후속 당직 인선에서는 계파와 지역 등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은 15일 원내대표 경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지역별 안배를 해야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고위원에) 호남 출신이 한 명도 되지 않아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배려해야 그룹이 여성·노인·청년·장애인·지역 등으로 많아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인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 원로그룹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과 유성엽 의원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안철수 관계설정 10월 재·보선때나 결정"

신경민 최고위원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가 이르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계기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간의 관계가 설정될 것"이라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10월이 (1차)마감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그 다음에도 마감시간이 여러 개 있을 것으로 봐서 야권 시장에서 양측이 열심히 노력해서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임박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철수 신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는 질문에 "신당이든 정치세력이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호남안배론'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호남이 여러 선택을 잘 들여다보면 지역만 고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선택했다"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역을 고려해서 뽑아야 한다는 것은 호남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 김한길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상임위, 이번엔 국회의장이 반대

국회법 절차 들어 거부…다시 원점서 재검토키로

해결될 듯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들어 거부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는 보건복지위 소속이던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양보하고 정무위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양보의 뜻을 밝히면서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 안 의원도 상임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전날 보건복지위 배정을 희망하는 신청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9일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 전체 현황을 점검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자리를 주고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상임위 배정 문제가 처리되는 일련의 흐름에 상당한 불쾌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국회법 48조 2항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의장과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거치지 않은 채 여야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이학영 의원과 상임위 문제로 얘기를 한 이후 국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던 것"이라며 절차를 무시했다는 강 의장 측의 주장에 억울함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상임위 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강 의장 측에 이날 면담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서도 '갑을 관계' 논란

여야 모두 "우리가 乙" 주장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갑을(甲乙) 관계' 논란이 국회에도 상륙했다.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위치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은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을'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농담조로 "(국회에서) 요즘은 민주당이 더 '갑'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한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료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강력한 검증 공세를 펼친데 이어 사회적 화두인 경제민주화 입법도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 영향 등으로 법안 상정 및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각종 협상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사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갑이고, 정부와 여당은 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내의석 절반을 넘는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연히 국회 관계에서는 '갑'이고 민주당은 '을'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 운영상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정부의 측면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떻게 여야 관계에서 야당이 갑이 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이 갑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거대 여당의 엄살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기력 새누리 돌파구 찾나

16일 대규모 당직개편…이완된 당 분위기 전환 주목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당내 무기력증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당내 리더십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9일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최고위 의결권은 황우여 대표,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 등 7명이 갖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동행한 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는 주례 원내대책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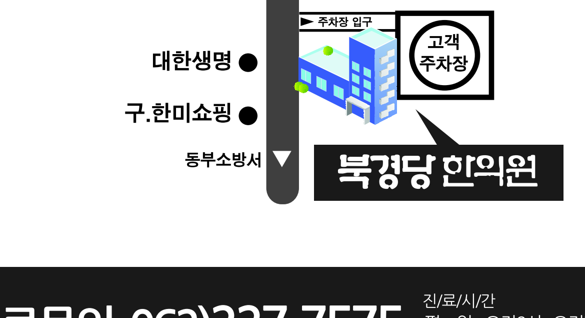
일부에서는 이 같은 안이한 분위기로 당의 과반 의석 유지 여부가 걸린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대표가 오는 16일께 단행할 예정인 대규모 당직개편이 이완된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군이 모두 영남권 인사들인 만큼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수도권 3선인 홍문종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제1사무부총장에 재선의 윤상현 의원, 제2사무부총장에 원외 인사인 정송학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에는 홍지만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건물/상가 추가대출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전. 답. 나대지
▸공유지분/미준공건물
▸부동산 취득잔금
▸사업자금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